

確한態度를 취하고있으며 이點에서도 발트하고도 다른데가 있는것같다. 이러한 社會倫理的關心이있으므로 美國에서는 발트보다도 부른너를 바다드리고있다.

終戰後(世界第二次大戰)에 우리나라에와서 여러가지講演

(Emil. Brunner)

(justice without love is
sentimental and justice
without belief disorder
without 神學 (the theology of
orials) 이 그의 代表的 著作
이런 elli알리어져있다。

外交官의 證言

있다. 世界周知의 事實을 단
지 確證하는데 머물지않는다면
또한 놀라운 反響을 이르킬것
이다. 例컨데 同博士는 朝鮮指

一九八〇년까지는 世界를 征服
하려는 計劃을 하고있다고 言
及하며 또한 所謂 國聯을
自國의 破壞의 宣傳을 世界에 擴
大하는 役割을 하고있다고 辟
에 생각할수없다고 言明하
였다.

부터 소위 있는 報는 明히 世界에 對한 自由世界의 野心を 抑止하고 自由世界의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努力한다. 自由世界의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努力한다. 自由世界의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努力한다.

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疑心할 것이 없다。이 모든 活
 動은 또한 鐵의 장막의 外部
 에 있는 地域을 最後에는 支配
 하기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것
 이라면 意味가 없어질 것이다。
 共產主義에서 劇的逃亡後 公
 行한 高貴스博士의 自證言은

自由世界에 대한 중대한警告를 포함하고 있으며, 플랑없이自由世界를 분起시킬것이다. 外國의目標가 世界의征服에 있다고하는 그의證言과 그가 행한鐵의 장막속에 國民의悲慘한生活狀態에 대한暴露는人間精神을 타락시키는데 대하여反抗을 必然的으로强化하게끔 될것이다. 自由世

界의 國民은 最近 그의 警戒心
 을 완화 하고 있는 경향에 있
 었으나 고로엿스博士는 마치
 이 때에 나타나서 그들에 대하
 여 共產主義者の 平和와 友情
 을 주장함으로써 誤解된 安全
 感에 빠지는것은 自殺行爲라고
 까지는 할수가 없으나 적어도
 어리석다고 警告하고있다.
 고위츠博士는 共產主義로부
 터 逃亡한것과 鐵의 장막속
 의 國民의 悲慘한 生活狀態를
 暴露한것과 世界에 대하여 또
 량의 野望에 關한 證言으로
 말미아마서 全自由國民에게
 많은 公憤을 하였으며 共產主
 義의 危險에 대하여 警戒心を
 새롭게 하여주었다.

○ 알렌 D 클락 牧師 (팍알렌宣敎)

師의 子弟) 南米콜롬비아에서
 宣敎하다가 父親의 뒤를 이
 이어 韓國에 宣敎師로 가는
 길에 一週間 留日。

○ 변자민 · 설근牧師 (韓國宣教師) 로 가는길에 當地에서 語學準備中。



○근자
에 애급
나 일강변
에 있는
「나그엘」
하갈」이
리는 곳
에 힌

날개가 달린 불개미(빨간 개미)가 떼를 지어 불려와서 인가의 기둥이며 가구와 의복을 모조리 훑아 먹으므로 시민들은 대공난이라고 한다. 나집수상은 군대를 보냈서 불을 놓아 이 개미떼를 없이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도 아직 이 빨간이 침입을 막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주민에게 다른곳으로 옮겨가기를 권하는 중인데 어제는 이 빨간이 침입자에게 대하여는 여간 곤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결국은 어떤 지독한 약을 쓰거나 집까지라도 불을 질러 노아야 하겠다고 한다.

○빨간이의 화는 개성 말년의 불가 살이에 비할바 아닌 세계의 대악마로 사람의 상상을 미혹하고 생명과 재산 전부를 앗아가는 무서운 원수인것은 겪어 본 사할들만이 알수있거니와 문제는 빨간이의 노골적 무력인 침략보다 절에는 힌곳을 입고 이모퉁이 저모퉁이 침입해들어와서 민심과 사회와 교회를 좀 먹고 나라를 찌구러트리려는 것이다. 가장 경계할것은 수박같이 겉으론 희고 속으로 빨간 무리다 이런 무리가 가장 악질이오 무서우니 정부에도 교회에도 틈틈이 박혀있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 다 그러나 이런 악질분자도 조선의 수소탄도 하나님앞에는 서운것이 아니다.

名古屋教會新築聖堂奉獻式

十月十五日午後二時舉行

자녀 六月末에 준공된 나그
야교회는 그동안 적지않은 부
최가 있어 일년이면 도록 헌당
식을 하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은 교인들이 보조함에 있어
는물을 먹음고 드리는 열렬한
일 오후 二시에 제九회 총회
가 폐회되는 날 헌당식을 거
행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총공사비, 비품등 四백만원에
달하는 공사이었던 만큼 하나
님의 불같은 축복의 선물이

서울中央YMCA

五十週年記念式

九까지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있
게되었다.

中央青年會는 창립 이래로 반백
년동안 구한국 황실을 비롯하여
정부와 내외 여러 유지의 원조

로 온 표인들은 생각하고
격한중에서 헌당식준비에 분망
중이라고 하며 하나일일에 세
배배당을 바치기전에 마음을
먼저 바치며 은혜를 받기위하
여 十月七日일부터 十日까지
저녁마다 저녁특별기도회를 연
다고 하며 十月九日에는
교인들이 총동원하여 예배당
대소제를 한다고 한다.

한글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음을 기초로 하는 모든 文化事
業을 하는 한편 外交의
한마디도 알리고 李商在
선생님은 偉大한 人物로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의 정신으로 민족을 위하여
신한 青年을 길러낸
가 이 세 시대를 당하여 서
로에서 문화와 科學의 진

있으며 밖으로는 난지도에 고아
를 수용하여 가르치는 소년시와
불행한 부인들 수용한 삼동회관
등의 훌륭한 사업이 있다 그리
고 이번 기념식을 당하여 이숙
만박사와 이상재 선생 윤치호 선
생 조만식 선생 김정식 종무와
양주삼 감독 신응우 박사 최영준 목
사 등 여러 공로자를 추모하게
되니 고 하며 기념행사는 다음

一、十月二十五日(日)午後三時
감사예배。

十月二十六日(月)午後三時
기독교회식

一、十月二十七日(火) 축하음악급
급 어린이 잔치

一、十月二十八日（水）午後三時
노인잔치

一、十月二十九日(木) 축하운동회



(名 古 屋 教 會)

世界長老教青年大會에 參席

聖地巡禮를 마치고 돌아오는

黃聖秀氏談



(黃聖秀氏)

장	명신흥씨와 같이 청년대표	「뽕우쇼텐」에서	본지에 이미 보도한바
가	모이는 제3회 世界長老會	十六개국	회관
장	靑年大會에 한국장로교회 총회	대표	

로 출석했던 국회의원들이요, 청연합회장 황성수(黃聖秀) 씨는 그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유림의 여러나라를 역방하고 성지 팔레스타인에 주일이 밝아 위에 계시던 발자취를 찾아보 후에 귀국하는 길에(지난 22일에) 본사를 방문하였고 다음 주일인 3日には 동경 우리교회에서 여행 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동 대회에만 출석한 것이요

서, 한국의 사정을 소개하는
장시각의 감명을 하므로 전회
원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물
아오는 길에 영국과 불란서와
스웨덴, 서서, 이태리, 애급, 아
랍연방들을 차례로 찾아가
는 곳마다 간절한 요청에 따라
서, 한국의 입장을 특히 한국
교회와 집관중에서도 힘있게
자라가는 현상을 충분히 알게
하였고 유익이나 덕구나 아랍

옥스남 監督에 對한
니버敎授의 辯護

소위 「마카시 선봉」이라는
美國議會의 非美活動委員會의
活動이 美敎界에 미처서 마슈
△暴言問題를 이르키고 다시
감리敎 監督 옥스넵牧師에 대한
中傷事件이 일어나서 同監督이
同委員會에 대하여 強경한 抗
議를 提出하였다는것은 이미
前號에 報導한 이어나와 이제
現代美國의 代表的 神學者요 思
想界의 指導者인 L. 베教授는
最近 옥監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辯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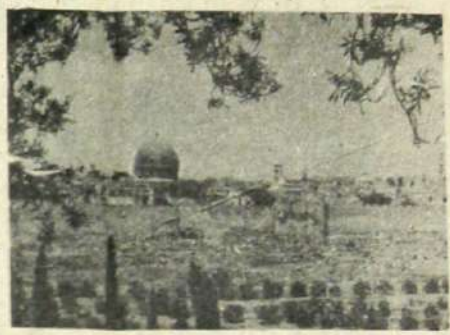
「옥監督은 共產黨員이 아니다
옥스넵監督이 美友好團體의
成員이었다는것은 事實이나 또
한 그當時 아이젠하워元帥의
推薦에 依한것도 事實이다. 그
때는 美國과 糾紛間에 타협에
길을 찾아낼 時代였으며 지금
와서 事實을 망각하고 共
産主義者라고 斷定하는것은 意
外的 일이다. 또한 제이 비이
마시우스氏가 以前에 約七千名
의 牧師가 共產黨 前衛機關
에 關係하고있다는 어리석은
發表를 하였으나 牧師들이 平
和主義者임으로 그中 數많은

牧師가 史屈크호를 平和運動에
署名하였다든가 막카랑법에
對하였다는 이유로 共產黨支
持의 오명을 쓰게 되었는
意外的 일이다. 옥스나루監督
에 關한 委員의 證據資料로
그가 인디아나州刑務所에서
敎한 一部分을 引用하고 있
나 이것은 基督敎의 愛國心을
說敎한 虛構한 것이다.

— 옥監督의 對共產主義觀에 疑義 —
그러나 옥監督의 證言中에서
問題되는 것은 基督敎와 共產
主義와의 關係이다 내가 理解하
기 苦難한 것은 그가 基督敎
共產主義과는 對立的이며 絕對
로 基督敎은 共產黨인파로는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이 對立
은 옥監督이 表現한것같은 間

單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點에 異議를 가질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物質主義를 基督敎思想의 敎育 個人의 責任에 있어 그는 拒否하였을것이다。 또한 問題가 되는것은 曷監督이 共產主義는 無神論임으로 自己는 神을 믿고있으니 絶對로 共產主義가 留수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無神論보다도 共產主義目的崇拜者가 더욱危險한것이며 一獨裁者를 밑 그 子孫부가 支配權을 獨占하고있는 主意說이 마루키시즘이나 決定論보다도 危險性이 있기때문이다。教會에는 元來 共產主義者는 없으나 크리스찬 마루키스트라고 불리어질 사람은 없는것이이다。

일 민족적으로 국어와 문자가 따로 있는 것도 모를뿐 아니라 남북이 사상적으로나 민족적 감정으로 지리적으로 서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가는 것만도 철저히 이해를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성지에 가서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도三八선'이 있어서 '요단'과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기 때문에 우선 여행자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다행히 좌우측에 단계를 되었다는 데 씨는 이번 여행에 한국에 교회와 젊은 크리스찬을 대표하여 또 국회의 외교위원장으로 (정부에서는



사진은 예루살렘전경 (황성수 씨가 성지순례여행을 하고와서 본사에 기증한 사진의 하나.)

한민국의 사정을 세계에 선전하는 외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한것은 크게 치하할 일이다. 그리고 씨는 이번 여행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번 여행에 한달동안 잠시도 쉬지 못하고 회합에 참석하고 수심나를 찾아서 밤에는 날마다 비행기를 타고 낮에는

廣島에教會設立案에대한

西南地方傳道部の報告

지난九月十四日 小倉教會에서 열린 西南地方會席上에서 原亨의 都市 廣島에 傳道部를 開始할것을決議하고 傳道部에서 現地視察를 하기로되었다.

廣島에는 約一萬名의 우리同胞가 (大部分이) 廣島西部에 居住하고있으며 그들의大部分이 教會에서 떨어져서 主님의福音을 듣지 못하고있다.

傳道部員인 下關教會青年會員 黃本鍾氏 金泰烈傳道師 三次教會 韓金平氏가 前長老 敎人 金陳東氏氏에게 數日間에 留하여 現地視察하였다.

廣島는 地理의 上으로 보아 東部西部로 區分할 수가 있으며 東部에는 前우리總會에서 退會한 성결교가 있어 數名이 禮拜를 드리우고있으며 이교회에 속한 信者가 東部에 居住하고 있는 敎友約十五名으로 부터 二十名 정도의 會集이 있다고 한다.

廣島에 도착한 다음날 우리傳道部員은 約一萬牧의 傳道部를 廣島縣前市市場附近에 傳道하였다

사람을 만나고 말을하고 다니니 과연 딱 피곤합니다. 역대 구원이 셋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정부의 명령으로 국제회합에는 여러번 참석할 일이 있으나 교회의 대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합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 회합에서도 내가 배우고 은혜받은바가 많았거니와 성지에 가서 일행생애 있을수없는 감동과 은혜받은것은 무어라고 말할수 없을만큼 귀하고 큰것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중에 같이 느낀것은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더라도 모르고 인식이 부족한것을 보고 있어서 선전과 소개를 할필요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다른것은 확실치 아니하나 예수님 기도하시던 켄세마네동안은 확실하다는데 그자리에서 기도를 한 감격은 일생에 잊을수 없읍니다.

또한陳氏를通하여 中國人宣敎師 미쓰 웰-멜女史를 알게되었습니다. 同女史의 廣島韓國居留民에對한 열렬한傳道의말씀을 들을때 주어! 우리民族을 용서하시고 主의인자하심을 배우시사 主님의特使를 보내여 이民族을 구원하시소 아멘! 스스로 이러한 기도가 흘러나왔는것이

傳道部の視察の結果 廣島에 教會를建築할때는 廣島의西部가 地理의 上으로 보아 適當하다고 본다. 名古屋教會 勉勵青年會雄辯大會 十月四日午後一時開催 나고야교회 연례청년회에서는 오는十月四일 주일에배우에 웅변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연사는 남여합十명이고 시간은 七분간인데 열렬한 기록청년들의 싸씨한 부르짖음에 기대가 크다고 하며 교인들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여 웅변대회에 참석하리라고 한다.

週間時報

十月一日 아이젠하워美大統領은 三十日記者團에게「美國國民友好國民에 對하여 소련의 水爆兵器所有로 부터 生起하는 美政策의 主要原則」을 宣明. 十月二日 一日 워싱턴에서 下外務部長官과 델레스美國務長官이 出席하여 韓美相互防衛條約을 條印. 十月三日 國聯은 二日 中立國選選委員會가 決定한 捕虜說明規則에 正式으로 抗議. 十月四日 三日 밤 서울放送를 通하여 韓公報處長이 一日,二日에 中立地區에서 印度軍部隊의 發砲로 인하여 反共捕虜

殺傷事件을 非難. 十月五日 國聯軍總司令部五日發表에 依하면 크라크大將은 七日 아침을 期하여 美極東司令官 國聯軍司令官의 地位를 固나 歸美. 十月六日 六日午前十一時 日本外務省에서 韓國領 金駐日公使를 首席代表로 韓日會談再開 基本關係, 國籍處遇, 漁業, 船舶, 財産請求權의 五分科委員會로 開始. 十月七日 델레스美國務長官은 六日記者會見席上에서 美,英,佛,三國國은 獨逸, 오스트리아, 韓國에 對한 소련의 保障을 世를 對소不可侵條約案을 檢討, 美國의 參加가 絕對 必要하다고 強調.

(四面五段에서 계속) 아드리게 할것이다. 「聯合軍間에 일이 敵에게 항복하는 結果를 가져오는데 利用當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 일이었는가?」라고 묻는 韓國外務部長官 卞榮泰氏의 質問에 대하여는 조금도 놀라울 바가 아니다. 「우리는 現在事情을 理解하기爲하여 一八八六年에 韓國과 締結한 條約의 歷史까지 살펴볼必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나 一九三八年에(MUNICHO) 무니치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희생만은 살펴볼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當時數萬의 英國人들이 教會에 集合하여 親旧와 聯合軍을 배반한 代價로 瞬間의平和에 對하여 感謝를 올리었다. 그때 美國사람들은 韓半島氏를 크게 높이 非難하였다. 우리들의 기억이 얼마나 지금 새로운 일인가! 一九五三年五月에 트루만大統이 人間을 殺害하고 奴隸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하여 韓國에 休戰을 成立시킨다는것은 驚愕한 美國과 國聯聯合의 不名譽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一九五三年 五月에 國聯公報部에 새로就任한 部長이 말하기를「新아이젠하워政府의 새로운冷戰의 重要한 政策의 하나는 곧 韓國의 捕虜를 釋放시키며 또한 國聯을 爲하여 싸우겠다는 中國捕虜를 釋放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李大統領은 議員團의 大部分이 中立의이 아닌것을 알며 捕虜들이 印度가 自由를 爲하여 싸우도록 보내지않을 印度의 一千名의 監視兵에게 구류當할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한 三個月간의 說得期間에 共產側에서 捕虜들에게 그들家族에게 巴해를 加한다는 우협을 하면 그들은 勇猛히 自由를 얻을수가 없다는것을 李大統領은 잘알고 있기때문에 正義에 立脚하여 國聯의 高貴한 憲章의 약속인「人間과 自由」를 讚美하며 捕虜를 釋放시킨것이 다. 平和를 爲하여 手段方法을 가리지않는 그의 現在態度만이 自由人들이 非難할지도 모른다는 일이다. 歷史는 언제나 그 勇氣있는 사람으로 칭찬할것이 다. 一九五三年六月二十五日

講壇

심기는 生活

主筆

사람은 서로 심김으로 살게 마련이다. 심기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임이고 스승에 대한 제자의 임이고 상전에 대한 종의 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간 時代의 생각이고 버릇이다. 이제 세상은 변하여 임금이며 대통령은 백성을 심기는 자요, 대신이며 長官은 官屬을 심고, 知事, 郡守는 그 道民, 郡民을 심기는 자요, 목사, 牧師는 그 教會, 信者를 심기는 사람이요, 어떤 團體의 會長도 그 會員를 심기는 자이다. 제자가 스승을 심기고, 종이 주인을 심고, 심기는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 그러나 스승도 제자를 심겨야 하고, 양도 백성을 심기고, 상전도 소위 「종」을 심길때에 이 일은 成立되고 可能한 일이다. 그렇다 사람은 서로 심김으로 살게 마련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것이 서로 심기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고 먼저 심기는 것이 심기는 生活의本色이다. 저편에서 나를 심겨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서로 심기는 것이 아니다. 나

만 심기라고 하는데서 모든 충들과 不幸이 생긴다. 내가 먼저 심겨야 한다. 먼저 하기를 다투기가 심기는 生活에서처럼 必要한 것은 없다. 自由世界에서는 나를 심겨 달라고 요구하나, 나만 심겨 달라고 요구하고 앉아있는 것은 더구나 權力로 強要한다면 그것은 罪이다. 그리고 世界를 밟고 幸福스럽게 만들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오, 德은 먼저 심기는 일이다. 많이 심기는 生活이다. 釜山에 어떤 避難民, 餘家族이 한데 사는 집이었다. 범소가 형편 없이 드러났다. 金××이라는 한 집 주인이 혼자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소제를 하였다. 그러나 번소는 그냥 드러났다. 「당신 혼자만 애쓰면 무슨 소용이오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러나 석달 지나 半年이 지나서야 金氏가 먼저 한보람이 나서 마침내 그 번소는 깨끗해졌다. 故 姜成甲목사는 馬山에서 進永에서 친구들과 같이 비와

冷戰外交序戰의勝利

本國新聞論調

(東亞日報社說)

過去六個月間의 冷戰外交는 一進一退가 있었으나 決算의으로 自由陣營의 프러스가 된다. 고 보아 無妨하다. 아이젠하워就任과 스탈린死亡의 兩大事件으로서 새로운時代를 마지한 兩陣營對立에 있어서는 크레믈린의 退勢는 歷然하다. 東獨과 波蘭, 헝그리의 民衆反抗運動은 自由陣營에 予想하지 아니하였던 得點의 하나여니와 이에對處하는 말렌코프의 手法이 一面彈壓 一面 妥和의 定石으로 나온것은 奇異할것이 없으나 果然 두가지의 強柔兩刀가 所期의 目的을 達할수있을는지 猶曰 두고보아야 알것

이다. 스탈린의 經驗과 威力과手腕에 뒤떨어지는 말렌코프로서 果然 事態를 收拾할수있을 것인가 疑問이다. 西獨總選舉에 있어서 말렌스長官의 警告가 逆效果를 낼가 보아 論議의 對象이 되었고 크레믈린은 소위 獨立統一案으로 아데나워의 敗北을 助成하려 했었다. 그러나 果實을 얻지 못했다. 結果는 基督敎民主同盟의 壓도의인 勝利가 된것은 自由世界의 최근에 가장 痛快한 勝利요 모스크의 卽야는 失敗과 할것이다. 이 問題에 있어서 모사데크의 經濟援助要請을 말렌스씨는

斷續을 가지고 동네 집집이 다니면서 마당과 범소 소제를 하였다. 이것은 그가 나를 위하여 심기는 生活이었다. 가장 힘을여서 가장 피하고 가장 추한 일을 하는 이는 가장 榮光스럽고 가장 값있는 사람이다. 그는 무릇 세 佛의 사람의 구실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農事는 밭짓는이 변소소는 이 무거운 짐지는이 기차기관에 붙는 이 一線에서 파우는이가 가장 높고 귀한 이다. 그러나 마음대로 기쁨으로 심기는이는 더욱 아름답고 더욱 귀한 사람이다.

칼빈의信仰과生涯 (4)

全 景 淵 博 士

칼빈은 아직 福音主義信仰에 信依치 않았고, 특히 에라스무스와 부대의 學風을 이 한 個人人文主義學徒에 不適合을 나타냈다. 이 著作「세네카의 容論註解」는 그 作者로 하여금 將來 科學者 즉 科學理學者가 될 所望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칼빈이 이 著作을 출판하고 에라스무스에게 이를 獻呈함과 동시에 成功에 아울러 누릴 名譽를 마음조리며 기다렸다는 것은 그의 親友 무란소아 다

니알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수 있을 것이다. 이제 骨牌는 던져졌을이다. 나의「세네카」의 容論註解는 出版되었을이다. 더욱이 自費金 擔으로 그것은 당신이 思想할수 있는것을 以上の 費用이 들었음이다. 나는 그것을 얼마라도 回收하려고 애쓰고 있음이다. 이곳에 나는 數人의 敎授에게 依頼하여 학교에서 敎科用으로 쓰도록 했음이다. 불행히도 한親友에게 公開講義를 하게끔 周旋했음이다. 당신도

冷情하게 無視하고 루테黨(共產黨)과 合作하였다는 모사데크의 威脅을 목殺한것은 한개의 外交의 冒險이었다. 自由世界는 여기서도 자해다. 구데타의 成功으로 一點을 加한셈이다. 韓國休戰이 果然 自由陣營側의 플러스가 된것이나 하는데 論議의 餘地가 많은것이나 出血戰爭을 終結시켰다는 意味에서 成功이라고 볼진데 말렌스씨가 뉴데리에서 印度首相에게 낸것이 萬一 中共이 休戰에 應하지 아니하면 作戰을 滿洲에 擴大할수밖에 없노라고 表明할것은 間一髮의 外交의 모험이라고 볼것이다. 네루는 그 뜻을 北京에 통하였고 北京은 이에 놀라서 불이야 불이야

어떤 집 食母가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무엇이 좋아서 당신은 노래를 하오,」 하고 누가 묻는 말에 「이렇게 내가 아주 일즉부터 수고해서 주인네가 편안이 되었게 자시고 온집안 이 즐거게 지내는 것을 보니 기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 심기는 生活은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利用하고 이것을 팔시는것은 가장 큰 罪惡이다. 마가十장 (四三—四一五)

부산으로 피난 온 태호는 얼마 안되는 돈을 한동안 여러 식구가 여관에서 지내고 자기를 쓰고 쓰고 디렁디렁한 형편없는 방이나 방을 하나 얻어서 식구들을 함께 하고 다니 수중에 남은것은 친구를 만나서 차를 먹을 미천도 못되는 형편이라 그냥그날 생활해갈 길이 막연하였다. 그렇다고 태호는 뉘게 구차스러운 말을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답답스럽게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로종일 밖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혹은 전쟁과 시국에 대한 이야기, 혹은 피난중에라도 무슨 돈 생기는 사업을 좀 해보자는 이야기로 아무 결론이 없는 한담을 하다가 저녁이 저물어서 어께가 축 늘어져서 집에 들어와서는 전갈이 없는 한것을 한그릇 얻어 먹고 말도 없이 쓰러져 자는것이 있었다.

그럭저럭하여 유엔군이 후퇴하여 내놓았던 서울을 다시 탈환한 뒤였다 부산에 피난에 온 사람들도 그냥 지날수가 없으니까 무슨 사업을 해보려고 하게되고 혹은 재빨리 서울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네 서울에 안가보려나」 하루는 동광동 어떤 다방에 들렀다가 민용구를 만나서 이런 말을 듣고 공연하 호기심이 생기고 어떤 야심도 좀 움직여서

「가지 갈수있다면 가보지」 하고 태호는 군복을 벗어 입고 다음날 새벽에 용구와 같이 서울로 올라갔다 태호가 서울에 올라 목적이운데 하나는 해련을 찾아보려고 하는것이었는데는 말할것도 없는 일이었다.

잠깐 한 일주일동안 다녔는데 태호는 한달이 지나도록 소식을 없었다. 땅에는 태호를 기다리다 못해 자작나서서 팔아먹을만한것은 거진 팔아서 높은 시아버지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시아버지와 전설이 이와 식모하이하지 다섯 식구가 연명을 해 가다가「이러구 있다가는 안되겠다」하고 시집을 가서 온 옷가지들 팔아서 미천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시장 근처에 조그만 하포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우동장사를 시작하였다.

「네가 무슨 장사를 하니 그만 두어라」하고 어머니와 집안에서 굳이 말리는것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려서 시국 한 일이라 만일에 실패하여서 찌하나 하는 염려보다도 혼자서 결심을 하고 해보기로 했건만 남부끄러워서 어떻게 거리에 나설가 하는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남이 하는걸 나라고 못하겠니 어쨌든 해보지」 누구누구 아는 동무들이 다 방을 하나 매점을 한다 하는 말을 들은 명에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침 문지 많은 거리에 나앉아서 음식장사를 하는 몸이 되었다.

처음에는 일하는 아이를 내놓아 손을 대게하고 자기는 뒷방에서 음식만 만들어주고 일절 나서는 아니하였으나 부사할만에는 마침내「어떠냐 부끄러울 게 무어냐」하고 친히 나서서 손을 대게 되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해본 결과 훨씬 성적이 좋아서 바쁘고 고단하긴 하지만 집안 식구가 먹고도 꽤 이익이 있었다. 그러나 암만해도 명에서 견딜수 없는 고통은 짙은 농들이 그중에도 군인이 와서 먹고는 돈 안내고 달아나는 일보다도 과연 부랑자들이 와서 술 내라고 야단하고 술은 안판다고 하면 술을 사가지고 와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것이였다.

「아주머니 술 좀 부어주시요 아주머니가 술을 부어주면 더 맛이 있을테니 좀 부어주시요 그러면 음식값은 얼마든지 내리다」하면서 막 손목을 잡아 끄는것이였다.

西陣織有線無線ビロート
(四本ベルベツト)

韓服 치마 감其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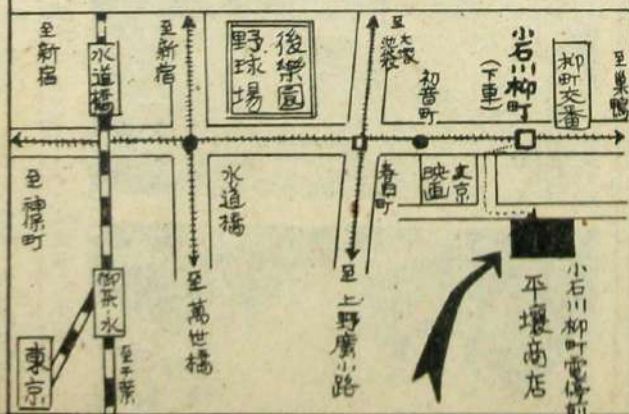
生産都賣販賣 岩本工場

經營主 李鐘洵

京都市上京區大宮通蘆山寺上ル
西入社横町288 電話西陣(4)5852番

平壤商店

朝鮮布木



東京都文京區丸山福山町四番地
電話・小石川(82) 0187・4879
イサナ 200円以上